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57, No. 3

OPEN ACCESS

#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의 협력 중심 추진과제 분석

# An Analysis of Collaboration-Focused Tasks in the 4th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 (2024~2028)

김 영 은(Young Eun Kim)*

〈 목 차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 론

**요 약 :** 본 연구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의 협력이 각 시·도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고, 정책의 의도와 이행 간 차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4차 종합계획의 49개 추진과제 중 협력이 강조됨에 따라 현장의 해석 여지가 높은 4개 과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과제의 추진 방향과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정책의 이행 양상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4개 과제는 모두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협력의 과정과 지속가능성보다는 사업의 수행 여부와 횟수 등의 산출 중심의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도서관을 비롯한 기관 간의 유기적 연결과 융합이 아닌 기관 간 공동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되었다. 향후 차기 계획 수립 시에는 기관 간 역할 분담부터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 결과의 정책 및 서비스 반영 등 과정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협력과 연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서관 정책, 공공도서관, 도서관 협력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tasks of the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 (2024-2028) are reflected in implementation plans and performance reports and to identify gaps between policy intent and implementation. Among the 49 tasks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Plan, four tasks that emphasize collaboration and thus allow considerable room for interpretation in implementation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se tasks were examined with a focus on their implementation directions and performance indicato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ir implementation was primarily assessed using output-oriented performance indicators, such as whether projects were carried out and the number of times they were conducted, rather than indicators reflecting the collaborative process and its sustainability. In addition, collaboration among libraries and related bodies tended to focus on the joint operation of programs rather than on organic linkages and integration among institu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comprehensive plans should more clearly specify the meaning and process of collaboration by incorporating process-oriented performance indicators that can assess the division of roles among institutions, joint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outcomes of such decision-making are reflected in policies and services.

**KEYWORDS :**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 Library Policy, Library Public Libraries, Library Cooperation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youngeunn@yonsei.ac.kr / ISNI 0000 0005 0628 7329)

• 논문접수: 2026년 8월 26일 • 최초심사: 2026년 9월 6일 • 게재확정: 2026년 9월 11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7(3), 55-77, 2026. http://dx.doi.org/10.16981/kliss.57.3.202609.55

※ Copyright © 2026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Ⅰ. 서 론

국내 17개의 광역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받는다. 2009년 최초의 도서관 관련 법정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이 수립된 이후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이하 제4차 종합계획)」에 이르기까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공공도서관의 양적 증가부터 도서관의 역할 확장에 대한 논의까지 도서관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며 변화해왔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까지는 개별기관의 자체평가 혹은 연간 시행계획의 점검 수준에서 진행해왔으나, 2020년 정책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환류 구조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였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4차 종합계획은 도서관 인프라의 확충과 가치 정립, 즉 도서관의 양적·질적 기반을 다진 이후 지역·국가 간 협력과 신기술의 도입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4차 종합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이행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제5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필수적일 것이다. Elmore(1979)는 정책은 수립 단계에서 의도한 목표가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형되기 때문에 정책 의도와 실제 실행 간 괴리가 발생하는 건 자연스럽다고 하였으며, 차성종(2010)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의 평가모형 개발 연구에서 정책은 한번 수립되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 또는 확대되므로 정책 집행 과정과 성과를 판단하는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22년 최초 시작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가 다섯 번째로 마무리된 현시점에서, 각 시·도가 제출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제4차 종합계획의 추진과제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종합계획의 49개 추진과제 중에서 평가결과가 미흡한 과제, 그중에서도 정책 모호성과 명확성을 기준으로 4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정책목표 및 수단의 모호성은 정책의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정책 모호성과 성과는 관련이 있다(김혜영, 2006; Hudson, 2005). Matland(1995)는 정책 모호성과 이해관계자 간 충돌에 따라 정책 집행 수준이 상이하며, 모호성은 오해와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혜영(2006)도 국내 지역의 여성 정책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 집행 방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재량에 의존하는 실험적 집행(experimental implementation) 상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정책의 의사결정자들은 목표를 구체화하고, 집중적인 목표 달성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정책이 모호할수록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의 재해석 역량을 요구하며, 이는 기관별 실행 편차와 다양성을 모두 유발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건축과 공간 리모델링, 환경 개선과 같이 상대적으로 목표와 수행 방식이 명확한 인프라 확충

과 관련된 과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 공무원의 재해석 여지가 크고 수행 방식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맞춘 과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각 시・도에서 제출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협력 중심 추진과제가 어떠한 추진방향과 성과지표로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가 제4차 종합계획의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연구질문 1.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협력 중심 추진과제는 17개 시・도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서 어떠한 추진방향과 성과지표로 구체화되고 있는가?

연구질문 2. 협력 중심 추진과제의 이행 양상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정책 방향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과 도서관 분야의 협력과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1) 지식문화기관 연대 서비스 발굴, 2) 지역자료 수집 및 보존, 3)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4) 정책 거버넌스 구축・운영의 총 4개 과제이다. 4개 과제는 공통적으로 기관 간 융합과 협력, 연대를 강조하고 있어 선행연구를 통해 도서관 분야에서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1.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은 도서관 정책 분야에서 가장 큰 단위의 국가 중장기계획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는 2024년 5월 29일 이를 심의・확정하였다. 제4차 종합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이라는 비전 아래 정보기술 발전과 감염병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도서관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추진과제를 포함한다.「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까지는 도서관 인프라의 양적 확충에 집중하였다면 제4차 종합계획부터는 양적 기반 위에서 도서관의 정책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다.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이라는 비전 아래, 비전 달성을 위해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 모두의 도서관', '공동체 활력, 연대・협력 플랫폼', '국가 경쟁력 강화, K-지식자원 보고', '미래를 위한 준비, 도서관 혁신'의 4대 정책목표, 그 아래 49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도서관이 지역사회 소멸과 고령화 사회,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하게 등장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의 가치 확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4차 종합계획의 4개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는 "2-3-2-(1). 지식문화기관 연대 서비스 발굴"로 「도서관법」 제8조에 따르면 도서관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학관 등의 각종 문화・교육시설과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해당 과제는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관 간 공동 기획이나 공동 전시 등 상호협력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운영을 핵심으로 하며, 연대(federation)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미나・심포지엄과 같은 채널을 활용한 융합서비스 모델 개발을 요구한다. "3-2-1-(1). 지역자료 수집 및 보존"은 "3-2-1-(2).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와 동일한 핵심과제에서 파생된 과제로 지역자료 수집 및 보존과 관련하여 도서관 간의 연계를 통해 분권형 지식문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역대표도서관과 기초자치단체의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의 자료 수집 및 보존체계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 과제인 "4-3-2-(1). 정책 거버넌스 구축・운영"은 도서관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로서 중앙행정기관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모든 레벨의 기관 간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상위 기관의 연구・운영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작은 단위의 지역도서관까지의 균형 발전을 지향한다. 4개 과제는 공통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자료 수집 및 보존이라는 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이용자 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서관이 사회적 문제 해결의 새로운 주체로서 역할 확장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의 연대와 협력은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 민간, 시민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상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Ansell & Gash(2008)는 협력 거버넌스는 제도적 설계와 이해관계자 간 신뢰 형성, 리더십 등 여러 요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박석희(2011)는 정책 당사자들은 협력에 참여하는 목표가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책상의 협력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필요로 하는지, 도서관 분야에서 협력과 연대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협력 정책의 요인

협력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이를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장에서는 협력 정책을 위해 어떤 요인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Ansell & Gash(2008)는 협력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문헌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인 대면대화(face-to-face dialogue)와 이해관계자의 권한에는 최소로 개입하면서 합의 과정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촉진 리더십, 합의 과정의 형평성과 합의 결과의 대표성을 공식화하는 제도적 설계 등 미시적・거시적 차원에서 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한 선행 요인을 식별하였다. 저자는 작은 성공(small wins)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협력 거버넌스의 과정적 성과에 집중할 때, 그리고 협력의 목적과 장점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협력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박석희(2011)는 정책 갈등과 협력이 발생한 사례를 선정하여 구조적 측면과 구성원의 인지적・행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협력의 촉진 요인을 검토하였다. 지속적・반복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결정 구조, 다시 말해 협력의 토대가 되는 네트워크와 호혜성 및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성원의 협력지향적・참여지향적 태도가 필요하며, 이처럼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전제될 때 정책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은경(2010)은 영국의 보건복지 협력 정책에서 국내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였는데, 보건과 복지, 양자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업무 영역 및 업무 성과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양 분야의 정책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중복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재정방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상대 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근무환경이 조성된다면 높은 수준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김유승(2012)은 도서관과 유관분야인 국회 라키비움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도서관과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 3개 기관의 통합 발전 전략을 논의하였다. 김유승(2012)에 따르면 문화유산과 지식정보를 다루는 기억기관은 서로 다른 학문적 기반 위에 구축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IT 기술과 기반 시설, 법적・행정적 지원 등 여러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구성원 간 신뢰 구축과 상호 간의 비전 및 이해 공유를 의미하는 내재적 요인이 선행될 때 협력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정리하면 협력은 공공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복수의 기관이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신뢰를 가장 기본 요건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협력은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높은 성과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을 발전시키는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 즉 과정을 성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Ansell & Gash, 2008). Emerson et al.(2012)도 협력의 성과는 단순한 자원 투입을 넘어 제도적 맥락과 협력의 참여 동기, 참여 주체의 공동 행동이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적 성과는 협력의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정의하는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Saarikoski(2000)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정보를 수집・해석하는 공동 사실 확인(joint fact finding)이 과정적 성과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상호 간 신뢰 구축의 시작점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협력의 성패는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과정적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대상 과제에서 협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실행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도서관 분야에서의 협력

본 장에서는 도서관 간 협력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학교 등 여러 유형의 외부 단체와의 협력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협력이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도서관 협력의 필요성은 이용자의 복합적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Giesler(2019)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미국 중서부의 노숙인 쉼터와 공공도서관 간의 협력 관계를 탐색하였다. 공공도서관 사서와 노숙인 쉼터 종사자, 양측 기관 모두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체계적 노력이 아직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을 위해 일방적으로 사서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노숙인 이용자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쉼터 종사자와 사서 간 적극적 소통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Johnson(2019) 역시 사회복지사와 사서의 직업적 가치가 상당히 중복됨에도 학술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사와 도서관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사회복지사 인력을 활용하여 도서관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거나 주거·가정 환경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가 상담, 자원 연계와 같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협력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를 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임여주(2018)는 사례 연구를 통해 공공도서관이 협력을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를 사서 인력의 부족과 사서의 다문화 관련 문화적 역량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홍보와 참가자 모집에서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협력이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기 어려운 전문성은 외부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보완되고, 이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포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서관 협력의 결과는 서비스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논의된다. 최찬겸(2022)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정보자원을 접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 차원에서는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협력의 이점으로 제시한다. 이승길(2019)은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공동체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관종별 도서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 간 협력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보자원 및 IT·문화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도서관 간 협력은 개별기관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와 지역주민에게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도서관 협력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Iswele-Ishhola et al.(2024)은 나이지리아 공공도서관과 공익 단체의 파트너십 구축

과정에서 정보 교류의 부족, 집단별 운영 역량・방식 편차 등이 협력의 저해 요인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중에서도 정부의 관료주의가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상적 협력을 위해서는 대상 기관들은 정부의 간섭 없이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명수와 오동근(2025)은 대구시 공공도서관이 지역 내 외부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한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문 콘텐츠 확대, 지역문화 자원 활용, 체험 기반 학습기회 제공 등 협력 프로그램의 장점을 확인한 동시에 정기적 소통의 부재, 일정 조율과 업무 분장의 어려움 등을 협력의 주요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류웅재(2010) 역시 도서관 간 협력 활동이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제도적 기반과 행정 등 협력체제의 조성이 미비한 경우 한쪽 기관의 일방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협력은 단순히 참여 기관을 늘리거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협력 과정의 운영 방식과 이에 기반한 관계 형성이 협력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도서관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협력 주체 간 업무 공조의 공식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MOU 체결, 협의체 운영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서로 간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여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노영희 외, 2018; 정명수, 오동근, 2025).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 분야에서의 협력도 소통과 신뢰, 제도적 기반 등 타 분야에서의 협력 정책의 선행요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도서관 분야에서 협력은 만성적인 예산・인력 부족과 유사 서비스 기관과 이용자 중복으로 인한 경쟁 심화 등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도서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협력은 기관 간, 부서 간 단순한 업무 분담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참여 주체가 고유한 역할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도서관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도서관이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협력이 각 시・도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제4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성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첫째, 제4차 종합계획과 정책 협력, 도서관 협력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여, 각 시・도에서 추진한 과제의 이행 양상을 과정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둘째, 제4차 종합

계획 내 4개 추진과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시·도의 2025년도 시행계획·추진실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수집한 자료에 대해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텍스트로부터 의미있는 주제, 개념, 관계 등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연구방법으로(김위정, 임고운, 2025) 각 과제의 추진내용을 검토하고, 의미와 기능이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범주화하였다. 이후 각 범주의 공통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과제별 추진방향과 성과지표를 유형화하여 제4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방향과 협력의 과정적 관점을 바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 | |
|---|---|
| 문헌 연구 |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및 정책 협력·도서관 협력 문헌연구 수행 |
| ↓ | |
| 데이터 수집 | 17개 시·도에서 제출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의<br>2025년 시행계획·추진실적 자료 수집 |
| ↓ | |
| 데이터 분석 | • 과제선정 : 제4차 종합계획의 49개 과제 중 4개 과제 선정<br>• 선정기준 : 3개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대상 과제 선정<br>① 17개 시·도가 모두 추진하면서, ② 평가결과가 미흡한 과제,<br>③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하여 정책 모호성이 높은 과제<br>• 분석내용 : 문헌연구에서 도출한 정책 협력의 정의와 선행요인을 기반으로<br>17개 시·도의 시행계획·추진과제 내용, 문제점 등 질적 내용분석 수행 |

〈그림 1〉 연구 절차

분석대상 과제는 3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제4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이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한 과제를 1차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총 49개 과제 중에서 17개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둘째, 2025년도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종 평가단계가 4단계 이하인 과제를 선정하였다. 각 과제는 총 6단계로 평가되며, 1~2단계는 미흡·개선 필요, 3~4단계는 정상추진, 5~6단계는 우수에 해당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총 7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셋째, 정책 모호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과제에 대해 현장의 해석 여지가 크고, 기관 간 실행 편차가 상이할 수 있는 4개 과제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외한 3개 과제는 1) 공공도서관 지속적 확충, 2) 도서관 공간 혁신, 3) 안전한 도서관 환경 조성으로 3개 과제는 공공도서관 건립과 리모델링, 공간 조성 및 시설환경 개선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과제 수행 방식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표 1〉의 4개 과제는 기관 간 연대와 협력, 역할 분담 등을 과제 수행 방식으로 제시함에 따라 참여 주체와 지역 여건에 따라 수행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과제가 각 시·도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분석하였다.

〈표 1〉 분석대상 추진과제

| 핵심과제 | 추진과제 |
|---|---|
| 도서관 융합서비스 확대 | 지식문화기관 연대 서비스 발굴 |
| 지역자료 수집력 강화 | 지역자료 수집 및 보존 |
| | 온라인자료 수집 및 서비스 |
|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정책 거버넌스 구축·운영 |

# Ⅳ. 연구 결과

## 1. 지식문화기관 연대 서비스 발굴

급변하는 정보 환경에 적응함과 동시에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교육시설 간의 연대협력은 중요하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최찬겸, 2022). 각 지역 도서관의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공공도서관을 주축으로 한 지역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노영희 외, 2026; 장인호 외, 2023).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아카이빙(archiving)하고, 아카이빙한 콘텐츠를 이용자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도서관의 서비스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확산이라는 비전 아래 작가의 미술 작품과 관련 도서를 함께 제공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라키비움, 무형유산 아카이브와 인문학 강좌를 함께 운영하는 국립무형유산원 책마루 등 지역 단위의 새로운 연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제4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도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추진 방향을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협력의 역할에 대한 관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협력 자체가 과제를 추진하는 핵심 실행 방식으로 기능하는 유형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외부기관이나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즉 협력의 결과가 도서관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의 다양화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도서관의 서비스가 문화예술·지역공동체 영역으로 확장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단발성으로 개별 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넘어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경우로 네트워크 형성, 실무자 간 정보 교류, 파트너십 구축 등 공식적·비공식적 협력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분석 결과 모든 지역에서 지역의 예술가, 갤러리, 박물관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술 작품 전시, 인문학 강연 등 협력으로 확보한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에서는 지역사회의 소통공간,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거나 협력 주체를 시민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기획하는 등 기존의 도서관 기능을 확대하려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표 2〉 지식문화기관 연대서비스 발굴 과제의 추진 방향*

| 구분 | 추진 방향 |
|---|---|
| 공동 운영을 위한 협력 | 지식문화기관 간 공동 기획, 공동 전시 등 상호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
| | 지역 예술가·지식문화기관 협력을 통한 작품 전시 및 인문학 행사 공동 추진 |
| | 지식문화기관 간 협업을 통해 독서문화 및 인문학 확산 프로그램 공동 운영 |
| | 그림책 작가와 연계한 주제 전시를 통한 북큐레이션 운영 |
| | 지식문화기관의 전시 프로그램을 연계한 북큐레이션 운영 |
| | 지역 예술가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우수 예술작품 전시 운영 |
| | 상호협력을 통한 도서관 자료서비스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 | 지식문화기관과 연계하여 미술 작품 전시 및 강연 개최 |
| | 지식문화기관 연계 북큐레이션 및 도서대출 서비스 운영 |
| | 박물관·미술관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
| | 도서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북큐레이션 전시 및 공동 문화행사 운영 |
| 서비스 확장을 위한 협력 | 지역 화가의 전시 공간 제공 및 주민의 문화예술 체험 확대 |
| | 지역공동체와의 소통 및 문화 체험 공간으로서 도서관 기능 강화 |
|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복합문화 서비스 기획 |
|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 작은도서관 역할과 기능 모색을 위한 경험 공유·교류의 장 마련 |
| | 대학-도서관 간 상호 역량 강화 및 공동 발전 도모 |
| | 공공도서관·작은 도서관·지역 서점·박물관 등 지식문화기관 간 연대를 통해 공동의 목표와 협력 모델 구축 |
| | 유관기관과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 |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2025년도 시행계획·추진실적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다음으로 각 시·도 공공도서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설정한 성과지표를 살펴보았다. 각 시·도는 동일한 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3〉과 같이 성과지표를 운영 실적과 참여 규모, 성과·효과 중심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운영 실적 중심 지표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운영 규모와 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북큐레이션, 전시, 프로그램 운영 횟수, 행사 개최수 등 협력을 기반으로 수행된 활동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규모 중심 지표는 과제 추진 과정에서 참여한 기관과 이용자의 수를 측정한 것으로 참여 기관·도서관 수, 참여자 수, 서비스 제공 기관 수 등 참여 주체의 규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해당 과제에 많은 사람과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성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성과·효과 중심 지표는 과제의 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의 실시 여부로 평가되었으며, 1개 지역에서 참여 기관의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3〉 지식문화기관 연대서비스 발굴 과제의 성과지표*

| 구분 | 성과지표 유형 | 주요 성과지표 |
|---|---|---|
| 운영 실적 중심 |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운영 규모 및 빈도 | 북큐레이션·전시·프로그램 운영 횟수, 행사 개최 수, 연계 서비스 제공 수, 협력 건수 등 |
| 참여 규모 중심 | 참여 기관 및 이용자 규모 | 참여 기관 수, 참여 도서관 수, 행사 참여자 수, 협력 기관 수, 도서대출서비스 제공기관 수 등 |
| 성과·효과 중심 | 이용자 만족도 및 성과 | 참여 기관·단체 만족도 조사 등 |

*2025년도 시행계획·추진실적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지식문화기관 연대서비스 발굴 과제를 살펴본 결과, 제4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술작품을 연계한 라키비움, 무형유산을 활용한 아카이브 등의 연계 서비스의 방향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지역의 문화자원이나 이용자 수요에 맞게 차별화하기보다는 전시・강연・북큐레이션 등 비교적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연대와 협력이 중심이 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과 측정은 주로 활동 빈도와 참여자 수 등 정량적인 지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협력의 질적 수준이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협력의 과정적 성과, 즉 기관 간 역할 분담이나 공동 기획 및 상호 신뢰 형성 등 협력이 형성되고 지속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요소들이 성과관리 체계 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지역자료 수집 및 보존과 온라인자료 수집 및 서비스

지역자료 수집 및 보존과 온라인자료 수집 및 서비스는 각 지역 실용자원의 공동수집과 보존이라는 동일한 핵심과제에서 파생된 과제로 궁극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종합적인 자료 수집・보존 체계 구축을 지향한다.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기억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지역특성화 자료를 수집 및 보존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장덕현, 2020). 더불어 지방분권과 지역 중심 발전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간과 지역문화 거점 공간으로서 지역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정책 담론 형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채지민, 2024).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이를 위해 지역자료 수집을 위한 체계 구축과 광역대표도서관・공공도서관 공동의 납본・보존센터 설치, 지역별 온라인자료 수집 지침 마련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3-2-1-(1). 지역자료 수집 및 보존”과 “3-2-1-(2).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의 두 개 과제는 전자자료와 비전자자료라는 수집 대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통적 역할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 유형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수집 및 보존 체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두 과제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각 시・도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추진 방향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자료 수집・보존의 단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수집・보존 체계 구축은 지역자료와 온라인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협력체계와 지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서관은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자원을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자료 수집은 개별 기관이 아닌 기관 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Renaville & Prosmans, 2023). 이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과 자료 소장 기관 등 여러 기관 간의 협력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두 번째 자료 수집・보존 활동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공동체 기억을 기록하고 축적하는 활동이 공공도서관의 기본적 역할 중 하나라고 주장한 Zhang et al.(2025)의 연구를 근거로 하였으며 향토자료,

지역 간행물, 전자자료, 지역 기록물 등을 발굴・수집・보존하는 실행 활동을 의미한다. 세 번째, 디지털화 및 서비스 확장 유형은 도서관이 접근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지역자료 수집부터 이용자 제공까지 적임기관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이진민, 2003) 수집・보존된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나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활용성을 높이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표 4〉 지역 실용자원의 공동수집・보존 과제
(지역자료 수집 및 보존・온라인자료 수집 및 서비스)의 추진 방향*

| 구분 | 추진 방향 |
|---|---|
| 수집・보존 체계 구축 | 지역 실용자원(향토자료 등)의 공동수집・보존을 위한 센터 설치 등 체계 마련 |
| | 국립중앙도서관-광역대표도서관-기초도서관 간 협력을 통한 지역자료 수집 및 보존체계 구축 |
| | 광역대표도서관 지역자료 납본・보존센터 설치 |
| | 지역 내 발행자료 납본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체계 구축 |
| | 광역대표도서관-기초도서관 간 협력을 통한 지역 자료 공동보존 기반 및 공동이용 체계 구축 |
| | 지역기록 유산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 체계 확립 |
| | 장기적 자료 보존・활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 |
| |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자료 디지털 보존전략 기본계획 수립 |
| | 온라인자료 수집 및 서비스 지침 마련 |
| 자료 수집・보존 활동 | 자료실 내 향토자료 서가 운영 |
| | 지역도서관 장서의 효율적 관리 및 자료실 서가 여유 공간 확보 |
| | 지역자료를 발행하는 지역 소재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납본 활성화 |
| | 지역 문예・역사 콘텐츠 등 적극 수집・제공 |
| | 지역 공공간행물 수집 및 보존을 통한 지식문화유산 전승 |
| | 지역 역사, 문화, 사회적 특수성을 담은 기록물의 발굴 및 수집 |
| |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출판사 등 발행 자료 및 지역출신 예술가 작품 등 다양한 유형 자료 수집 |
| 디지털화 및 서비스 확장 | 향토 및 지역자료 수집・보존으로 지역문화 아카이브 구축 |
| |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지역정보서비스 활성화 |
| | 온・오프라인 개방 및 제공을 통해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 및 지역사회 자긍심 고취 |
| | 전자책, 오디오북 등 전자자료의 대출・반납 서비스 제공 |
| | 오디오북 서비스 운영을 통한 시공간 제약 없는 독서환경 조성 |
| | 스마트기기 기반의 소장형 및 구독형 전자책 제공으로 도서관 비대면 콘텐츠 서비스 제공 |
| | 분산된 지역 사료와 전자자료의 통합 관리 및 보편적 디지털 정보서비스 제공 |
| | 지역문화 연구 활동 지원 |
| | 지역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활성화 |
| | 향토자료의 지역 연구 및 교육 자료로서 활용 가치 제고 |
| | 지역 내 문화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자료 영구 보존 및 정보 접근성 향상 |
| | 지역 공공도서관 통합 전자도서관 운영으로 전자자료 대출・반납 서비스 제공 |

*2025년도 시행계획・추진실적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다음으로 각 시・도 공공도서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성과지표를 살펴보았다. 두 개 과제는 수집 대상에 따라 과제가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성과지표는 자료의 수집・보존 체계 구축, 자료 확보, 디지털화, 협력 및 서비스 운영이라는 공통된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5〉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기반 구축 중심 지표는 각 지역이 온・오프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조직적 기반을 마련했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지역자료 수집 및 보존체계 구축 건수, 납본·보존센터 설치·운영, 공동보존자료관 수, 이관·납본 계획 수립 수 등이 포함된다. 이는 단순히 자료 수집을 넘어 지역자료와 온라인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성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확보 중심 지표는 지역·향토자료, 온라인자료 등을 얼마나 수집하고 확충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지역자료 수집 수(권), 납본 수량, 온라인자료 확충 수(종) 등이 해당된다. 대부분 수집량과 확충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과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는 각 시·도 공공도서관이 해당 과제의 성과를 우선적으로 자료 확보의 양적 규모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디지털화·아카이브 중심 지표는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지역자료 디지털화 건수,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 수(점), 디지털 원문 변환 자료 수(권), 향토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등록 수(권) 등을 포함한다. 지역자료와 온라인자료의 보존 방식이 물리적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장기적 보존과 접근성 확대의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협력·운영 중심 지표는 자료의 수집·보존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는지, 관련 시설과 서비스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지역자료 발행기관과 협업 추진 수, 협업 추진 도서관 수, 실무운영위원회 개최 수 등이 있으며 자료의 수집·보존이 개별 도서관의 단독 업무가 아니라 지역 내 자료 생산기관과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지역 실용자원의 공동수집·보존 과제
(지역자료 수집 및 보존·온라인자료 수집 및 서비스)의 성과지표*

| 구분 | 성과지표 유형 | 주요 성과지표 |
|---|---|---|
| 기반 구축 중심 | 수집·보존 체계 구축 | 납본·보존센터 설치·운영, 공동보존자료관 수, 공공보존서고 자료 이관·납본 계획 수립 수, 지역자료 수집 지침 수, 온라인자료 수집 및 서비스 지침 마련, 지역자료 디지털 보존전략 기본계획 수립, 전자출판물 서비스 현황 조사 및 지침 보급 |
| 자료 확보 중심 | 자료 수집·확충 실적 | 지역·향토자료 수집 수(권), 납본 수량, 온라인자료 확충 수(종), 디지털콘텐츠 구입 자료 수(권) |
| 디지털화·<br>아카이브 중심 | 디지털 전환 및<br>아카이브 구축 | 지역자료 디지털화 건수,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 수(점), 지역자료 디지털 원문 변환 자료 수(권), 지역·향토자료 원문 DB 구축 자료 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수(면), 디지털 아카이빙 체계 구축 건수, 향토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등록 수(권),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도서관 수 |
| 협력·운영 중심 | 기관 협력 및 서비스<br>운영 | 지역자료 발행기관과 협업 추진 수(지역자료 전시 횟수), 협업 추진 도서관 수, 실무운영위원회 개최 수, 디지털 아카이브 참여 공공도서관 수, 디지털 자료 서비스 제공 참여 도서관 수, 공동보존서고 운영 도서관 수, 지역자료 납본자료실 운영, 디지털 향토자료실 운영, 온라인자료 이용 수 |

*2025년도 시행계획·추진실적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종합하면 두 과제는 체계 구축과 수집·보존 활동, 서비스 확장이라는 공통된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자료의 수집·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이용자 서비스 제공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본·보존센터

설치,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통해서 지역자료의 지속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4차 종합계획의 방향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평가하는 지표는 회의를 얼마나 개최하고, 자료를 얼마나 수집했는지, 몇 건을 디지털화했는지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산출 중심의 정량지표로 인해 수집한 자료가 지역 정체성 보존에 어떻게 기여하고, 이용자에게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3. 정책 거버넌스 구축·운영

도서관 간 협력 네트워크는 도서관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협의체 활성화와 지역 협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한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예를 들어, 국가도서관위원회와 같은 중앙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거나 도서관 정책담당자와의 소통 채널을 마련할 수 있으며 또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도서관 간 운영·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 시·도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추진 방향에 대해 〈표 6〉과 같이 정책 거버넌스의 기능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정책 심의·의사결정 체계 운영 유형은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공식적인 정책 심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하여 각 지역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 독서문화 진흥 등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경우이다. 둘째, 연구·정책 지원 기능 강화는 연구용역, 도서관 통계 분석, 지역 현안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역 도서관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경우이다. 셋째, 협력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추진 유형은 지역 내 유관기관, 학교도서관, 민간 부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책문화 협력사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확장하는 경우이다.

〈표 6〉 정책 거버넌스 구축·운영의 추진 방향*

| 구분 | 추진 방향 |
|---|---|
| 정책 심의·의사결정 체계 운영 | 지역도서관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활성화 |
| |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정책 심의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
| | 도서관 정책 의사결정 기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 특성 맞춤형 독서정책 수립 |
| | 도서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심의 기구로서 광역도서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광역대표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도서관 균형발전, 지식정보 격차해소,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 심의를 위한 광역도서관위원회 구성·운영 |
| 연구·정책지원 기능 강화 |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지역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 | 지역도서관 지원을 위한 광역대표도서관 연구기능 수행 |
| | 도서관 통계를 활용한 지역도서관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 |
| | 지역도서관 현안과제 연구조사를 통한 도서관 균형발전 및 정보접근성 향상 |
| | 지역 도서관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한 상호협력 및 발전방향 모색 |

| 구분 | 추진 방향 |
|---|---|
| 협력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추진 | 지역 내 기관·단체와 도서관 간 운영·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
| |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 중심 협력 강화 |
| | 도서관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한 지역 도서관 정책 내실화 |
| | 업무협약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및 독서문화 향유 증진 등 협력사업 추진 |
| | 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문화 발전 기여 |
| | 지역서점 등 유관기관·도서관 간 협력 네트워크 확립으로 잠재적 이용자 발굴 및 독서 생태계 조성 |
| | 지역 내 도서관 유관기관과의 책문화 협력사업을 통한 협력 교류 강화 |
| | 시군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범위 확대 |
| | 독서·문화·교육·복지 등 지역 공동체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2025년도 시행계획·추진실적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정책 거버넌스 구축·운영 과제의 성과지표를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이 거버넌스 운영 중심, 정책기획 중심, 협력체계 구축 중심, 협력사업 실행 중심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거버넌스 운영 중심 지표는 광역도서관위원회 개최 수, 운영 횟수, 구성 및 운영 건수 등 공식적인 정책 논의 구조의 운영 여부와 빈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정책기획 중심 지표는 조사 연구 건수, 도서관 서비스 연구용역, 광역대표도서관 연구 과제 수, 지역도서관 활성화 방안 수립 등 지역 도서관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과 정책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력체계 구축 중심 지표는 시·자치구 네트워크 회의,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 학교도서관 지원 실무협의, 업무협약 체결, 협력기관 수 등 지역 내 기관 간 협력 기반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협력사업 실행 중심 지표는 협력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협력 사례, 유관기관 간 협력 사업, 타기관 협력 전시, 공공도서관 워크숍, 독서문화 플랫폼 추진 등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추진방향에서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사업 추진을 연속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파악하였으나, 성과지표에서는 측정 대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사업 실행 중심 지표로 재구성하였다.

〈표 7〉 정책 거버넌스 구축·운영 과제의 성과지표*

| 구분 | 성과지표 유형 | 주요 성과지표 |
|---|---|---|
| 거버넌스 운영 중심 | 위원회·회의 운영 | 광역도서관위원회 구성, 광역도서관위원회 개최·운영 (건)수, 시·군도서관장 및 도서관위원회 회의 개최 수 |
| 정책기획 중심 | 조사·연구 및 정책방안 수립 | 조사 연구 건수, 도서관 서비스 연구용역(개), 광역대표도서관 연구 과제 수, 광역대표도서관 연구기능 강화, 지역도서관 활성화 방안 수립 |
| 협력체계 구축 중심 | 네트워크·협의체·협약 구축 | 시·자치구 네트워크 회의 개최 건수,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 수, 학교도서관 지원 실무협의 개최, 도서관 단체 간 업무협약 체결,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실적, 운영·서비스 협력체계 구축(협약기관 수), 도서관 협력기관 수 |
| 협력사업 실행 중심 | 공동사업·프로그램 운영 | 지역기관·단체와 협력사업(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협력 사례 수, 행사 개최 수, 타기관 협력 전시, 공공도서관 워크숍 개최, 독서문화 플랫폼 '독서 OO' 추진 |

*2025년도 시행계획·추진실적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정책 거버넌스 구축・운영 과제는 공식적 의사결정 기구의 운영과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지원,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제4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협의체 활성화와 지역 협력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성과지표는 타 과제들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및 협의체 개최・운영 (건)수, 협력기관 수 등의 산출 중심의 단순 지표에 집중되어 있었다. 광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행보가 서비스 변화로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순 운영 횟수보다 협력체계 강화, 정책 반영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4개 추진과제를 종합하면 각 시・도의 협력은 기관 간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는 제4차 종합계획에서 강조하는 연대와 협력을 일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사업이나 프로그램 수행 등 가시적・정량적 활동을 중심으로 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관 간 역할 분담이나 공동의사결정, 지속적인 상호작용 등 협력의 과정적 요소보다 사업의 수행 여부와 횟수 등 결과 중심의 성과를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서의 협력은 제4차 종합계획에서 강조하는 기관 간 유기적 연결과 협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 Ⅴ. 결 론

본 연구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의 49개 과제 중 평가결과가 미흡하고, 정책 모호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협력 중심 추진과제 4개를 선정하여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상의 정책 이행 양상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문화기관 연대 서비스 발굴 과제는 미술관과 지역의 예술가 등과 협업하여 공동 전시와 강연 프로그램, 북큐레이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해당 과제의 핵심인 협력은 정책의 수단 혹은 결과로 다양하게 설명되었다. 또한 해당 과제를 평가하는 성과지표는 대체로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과 이용자 수 등 정량 지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의 유기적 연결이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서비스의 단순 더하기가 아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서비스가 하나의 맥락 안에서 연결되는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관별 전문인력・서비스의 유기적 연결이라는 해당 과제가 지향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이 보유한 고유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기관 수와 참여자 수 등 성과지표를 충족하기 위해 프로그램 확대만 추진하는 경우 협력은 형식화되고 서비스는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라키비움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결합된 공간으로 단순히 도서관 안에 미술 작품과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각 기관이 보유한 지식자원을 능동적으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오효빈, 김효정, 2024). 지식자원 간의 맥락 연결을 통한 통합적 제공이 라키비움의 본질인 만큼 협력의 과정적 관점을 적용한 성과지표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행사를 개최하고, 누가 참여하였는지가 아니라 각 기관의 고유 기능 정립부터 각 기관의 지식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반 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이용자 서비스 시나리오 설계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자료 수집 및 보존과 온라인자료 수집 및 서비스 과제의 두 개 과제는 수집 대상의 차이가 있으나 지역자료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해당 과제에 대해 각 지역의 광역대표도서관이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기초 단위도서관이 이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광역대표도서관의 리더십이 중요한 과제로 지역 실용자원의 공동수집과 보존 과정에서 광역대표도서관과 단위도서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각 단위도서관이 개별적으로 지역자료를 수집하여 자료관 또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공동수집・보존을 위한 기반 구축의 관점에서는 거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 내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을 포괄하여 지역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중심기관으로 논의된다(한복희 외, 2010). 또한 최근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인식 연구에서도 광역단위 도서관 정책 수립・시행과 지역도서관 지원・협력이 핵심 역할로 제시되고 있다(윤명희 외, 2024). 지역자료는 지역의 출판사,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여러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행・제작・유통의 과정에서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광역대표도서관은 물리적 공간인 납본・보존센터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 협력 주체를 발굴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을 조정하며,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메타데이터 기준과 작성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지역 내 문화기관 목록을 구축하여 기관별 보유 콘텐츠와 도서관 서비스 간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할 수 있다면 미술관・박물관과의 일회성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한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 거버넌스 구축・운영 과제는 지역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광역도서관위원회와 같은 정책 거버넌스 구축부터 그 결과로 협력사업을 실행하는 것까지 여러 단계와 목적에 걸쳐 진행되었다. 해당 과제는 시설 확충이나 자료 수집과 달리 가시적인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 협업과 조정으로 정책의 효과를 창출하는 과정 중심의 과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 개최 횟수나 협약기관 수와 같은 활동 지표만으로는 과제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산출 중심의 지표로는 협력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운영되었는지, 기관 간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지, 위원회

논의 결과가 정책 개선이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 기획과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 과정 중심의 지표와 정책과 서비스 개선, 협력 지속성 등 협력 결과를 대표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지표를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참여 기관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와 기관별 역할분담표 작성 여부, 위원회 논의 결과의 정책 반영 사례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위원회가 몇 번 개최되었는지가 아닌 실제 논의 내용이 정책과 서비스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 분야에서 가장 큰 단위의 정책인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책 과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차 종합계획의 협력 중심 추진과제는 단순한 기능의 결합을 넘어 이용자 서비스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적 연결과 융합을 지향한다. 협력은 단기간에 달성되는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향후 도서관 정책은 사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협력 과정의 질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과정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제4차 종합계획의 49개 과제 중 4개 과제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과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관 간 협력 과정에서 이뤄지는 실질적인 의사소통이나 역할 분담, 관계 형성 등의 내용은 문서만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상의 정책 이행과 실제 현장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협력이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협력의 이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광역대표도서관은 각 지역 내 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윤희윤, 김신영, 2016) 대표도서관 지정 여부와 운영 여건, 실질적인 역할 수행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이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과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담당자 인터뷰나 사례 조사,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수준 등 정량·정성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료상의 이행 양상과 실제 현장 간 차이를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서울: 국가도서관위원회. 출처: https://www.clip.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8&boardNo=1754&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

&menuNo=11

김위정, 임고운 (2025).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딜레마: 신문사설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31(5), 375-408. https://doi.org/10.24159/joec.2025.31.5.408

김유승 (2012). 국회 라키비움의 전망에 관한 연구 -기억기관 협력 정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93-115.

김혜영 (2006). 정책목표 모호성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책연구, 20(1), 73-96.

노영희, 장인호, 강지혜, 신영지, 노지윤 (2026). 유성구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식조사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3(1), 77-112. https://doi.org/10.3743/KOSIM.2026.43.1.077

노영희, 정대근, 김미연, 이용미 (2018). 특화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119-145.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12.119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출처: https://www.clip.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8&boardNo=19&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1

류웅재, 조현양, 이수진, 이현우, 윤나리 (2010). 경기도 도서관의 연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https://memory.library.kr/files/original/cab7379ed6563c95649ebdc27d8448ce.pdf

박석희 (2011).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정책협력의 동인 분석. 한국부패학회보, 16(3), 21-44.

오효빈, 김효정 (2024). 라키비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 에듀케이터의 아카이브 활용 역량 강화 교육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9(4), 47-66. http://dx.doi.org/10.15815/kjcaes.2024.19.4.47

윤명희, 김혜영, 이지연 (2024). 광역대표도서관 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4), 263-294. https://doi.org/10.3743/KOSIM.2024.41.4.263

윤희윤, 김신영 (2016).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조직 및 연계협력 방안 연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21-39. https://doi.org/10.16981/kliss.47.3.201609.21

이승길 (2019). 국가 수준의 도서관 계획을 기반한 학교도서관의 교육공동체 협력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2), 139-157. 10.4275/KSLIS.2019.53.2.139

이은경 (2010). 영국의 보건·복지 협력정책의 역사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1), 27-55.

이진민 (2003).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지역자료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임여주 (2018).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기관의 협력에 관한 연구 -다문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299-32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1.299

장덕현 (2020). 공공도서관 지역특성화장서 구축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333-349. https://doi.org/10.16981/kliss.51.4.202012.333

장인호, 노영희, 강지혜, 곽우정 (2023). 정선군의 도서관 정책혁신전략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3), 295-320. https://doi.org/10.16981/kliss.54.3.202309.295

정명수, 오동근 (2025).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특별프로그램 개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8(1), 131-160. https://doi.org/10.22417/DPSS.2025.4.18.1.131

차성종 (2010).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에 대한 평가모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303-331.

채지민 (2024).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간의 가능성.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출처: https://arte365.kr/?p=103702

최찬겸 (2022).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서비스 협력.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한복희, 이성숙, 이상호, 오종필 (2010).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협력체계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267-295. http://dx.doi.org/10.4275/KSLIS.2010.44.1.267

Ansell, C. & Gash, A. (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543-571. https://doi.org/10.1093/jopart/mum032

Elmore, R. F. (1979). Backward mapping: Implementation research and policy decision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4(4), 601-616.

Emerson, K., Nabatchi, T., & Balogh, S. (2012).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collaborative governan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2(1), 1-29. https://doi.org/10.1093/jopart/mur011

Giesler, M. A. (2019). The collaboration between homeless shelters and public libraries in addressing homelessness: A multiple case study.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59(1), 18-44.

Hudson, B. (2005). User outcomes and children's services reform: Ambiguity and conflict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Social Policy & Society, 5(2), 227-236.

Iswele-Ishhola, R. O., Aborishade, O. A., & Ishhola, B. C. (2024). Public Libraries collaboration with societal groups towards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Nigeria. NigerBiblios: Journal of National Library of Nigeria, 34(1), 112-126.

Johnson, S. C. (2019). MSW interns and public libraries: Enhancing services through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Public Services Quarterly, 15(1), 13-23.

Matland, R. E. (1995). Synthesizing the implementation literature: The ambiguity-conflict model of policy implement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5(2), 145-174.

Renaville, F. & Prosmans, F. (Eds.). (2023). Beyond the Library Collections: Proceedings of the 2022 Erasmus Staff Training Week at ULiège Library. ULiège Library. https://doi.org/10.48550/arXiv.2307.02362

Saarikoski, H. (2000).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s collaborative learning proces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20(6), 681-700.

Zhang, X., Wu, Z., & Wei, H. (2025). Libraries' efforts in saving community voices through local oral history: A case study from national, public, academic, and rural perspectives. IFLA WLIC 2025 Satellite Meeting: Uniting Knowledge, Building the Future: Libraries Serving Multicultural Communities through Local History and Genealogy. Astana, Kazakhstan.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 Sungjong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model for evaluating the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2009～201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4), 303-331.

Chae, Jimin (2024). The potential of community-based cultural and arts spaces in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Available: https://arte365.kr/?p=103702

Chang, Inho, Noh, Young-Hee, Kang, Ji-Hei, & Kwak, Woo-Jung (2023). A study on the establishing a mid-to long-term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based on Jeongseon-gun's library policy innovation strateg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4(3), 295-320. https://doi.org/10.16981/kliss.54.3.202309.295

Choi, Chankyum (2022). A Study on the Cooperation of Community Service Between School Library and Public Library. Master's thesis, Jeonbuk University. Korea.

Han, Bokhee, Lee, Sungsook, Lee, Sangho, & Oh, Jongpil (2010). A study of the cooperative

system models for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1), 267-295. http://dx.doi.org/10.4275/KSLIS.2010.44.1.267

Jang, Durkhyun (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llection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4), 333-349. https://doi.org/10.16981/kliss.51.4.202012.333

Jeong, Myungsoo & Oh, Dongguen (2025). Developing special programs of public library with cooperative organizations: Case of Yonghak library in Suseong-Gu, Daegu Metropolitan City.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18(1), 131-160. https://doi.org/10.22417/DPSS.2025.4.18.1.131

Kim, Haeyoung (2006). A study on influences of policy goal ambiguity on policy implementation. Public Policy Review, 20(1), 73-96.

Kim, Wuijeong & Im, Kowoon (2025). Social perceptions and dilemmas regarding the college admissions reform plan: A contents analysis of newspaper editorial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31(5), 375-408. https://doi.org/10.24159/joec.2025.31.5.408

Kim, Youseung (2012). A study on perspec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Focused on discussion about collaborative strategies of memory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93-115.

Lee, Eunkyung (2010). A historical study on the UK's social policies for encouraging collaborative working between social service and health care.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2(1), 27-55.

Lee, Jinmin (2003).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Local/Community Information in Public Libraries. Master's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Korea.

Lee, Seunggil (2019). A plan to cooperate with the educational community in the school library based on the national level library pl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2), 139-157.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2.139

Library Information Policy Committee (2019). The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2019~2023). Available: https://www.clip.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8&boardNo=19&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1

Lim, Yeojoo (2018). A study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libraries and local organizations: Focusing on multicultural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1), 299-32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1.299

National Library Committee (2024). The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 (2024～2028). Available: https://www.clip.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8&boardNo=1754&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1

Noh, Younghee, Jang, Inho, Kang, Jihei, Shin, Youngji, & Ro, Jiyoon (2026). A study on the perception survey for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Yuseong-gu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3(1), 77-112. https://doi.org/10.3743/KOSIM.2026.43.1.077

Noh, Younghee, Jeong, Daekeun, Kim, Miyeon, & Lee, Youngmi (2018). A study on developing guidelines for specialized publ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119-145.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12.119

Oh, Hyobin & Kim, Hyojung (2024). A study of museum educators' archival training to improve their expertise in larchiveum.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19(4), 47-66. http://dx.doi.org/10.15815/kjcaes.2024.19.4.47

Park, Saukhee (2011). An Analysis on policy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apital.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16(3), 21-44.

Ryu, Woongjae, Cho, Hyunyang, Lee, Soojin, Lee, Hyunwoo, & Yoon, Nari (2010).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Gyeonggi-Do's public library system through networking. Available: https://memory.library.kr/files/original/cab7379ed6563c95649ebdc27d8448ce.pdf

Yoon, Heeyoon & Kim, Shinyoung (2016). A study on the operational organization and connective cooperation plans of a regional central library: The case of Daeg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3), 21-39. https://doi.org/10.16981/kliss.47.3.201609.21

Yoon, Myunghee, Kim, Hyeyoung, & Lee, Jeeyeon (2024).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roles of regional representative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4), 263-294. https://doi.org/10.3743/KOSIM.2024.41.4.263